

중국, 3/4분기부터 회복세 전환?

JP모건,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 높아져 ... 7% 이하 추락 가능성도

중국 경제가 2012년 3/4분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JP모건의 중국지역 글로벌시장업무 책임자 리징(李晶)은 6월13일 JP모건 주최로 베이징(Beijing)에서 열린 <중국 지속성장 동력> 주제의 투자설명회에 앞서 2/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3/4분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고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가 보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최근 2/4분기 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제기했고, 정신리(鄭新立) 중국경제교역센터 부이사장은 5월 말부터 2/4분기 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징은 2012년 들어 중국의 정책결정층이 지속성장 및 포용성 확대를 위해 경제구조 전환작업에 착수했으며 전환과정에서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대폭 높아졌다면서 장기적으로 기여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4분기에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60%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또 각종 경제지표들이 악화되면서 중국이 경제부양에 신경쓰고 있다면서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아니지만 정책당국이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화폐정책과 관련해서는 2012년 하반기에 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 지급준비율도 1-2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JP모건은 6월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에 공공시설 투자를 다시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억제정책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합법적인 주택 매입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시험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14>